



학생 · 전문직 종사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인지도 낮다

50%이상으로 알아, 식량안보 차원의 홍보 이뤄져야
농약사용 절대 필요 도시민 61.5%, 농업인은 100%

(주)조농 조택수 사장 등 20세이상 농업인 · 도시인 대상 설문조사

- 홍보부 -

우리 나라 도시민의 60%는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50%이상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심지어 80~100%를 자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21%나 차지하고 있다. 농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1.5%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24%의 도시민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학생의 60%는 농약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인들은 농약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

고 있으나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유통시키면 처벌되는 것은 잘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더욱 보완 및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조택수씨 <현, (주)조농 사장>외 1인이 조사, 농약과학회지에 발표한 "농약독성에 대한 농민과 도시민의 인지도 분석" 결과

에서 밝혀졌다. 조씨 등은 지난 '98년12월부터 '99년 2월까지 20세 이상의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농약의 중요성, 적극 홍보해야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식량자급에 대한 이해정도는 50~60%가 43%, 80~100%가 2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 식량자급률이 29.4%('99년)임을 고려할 때 도시민들의 식량자급에 인식이 현실과 상당히 차

표 1. 도시민들의 우리나라 식량자급도 인식

식량자급도	무응답	<10%	20~40%	50~60%	80~100%	합 계
비율(%)	5.2	4.2	27.1	42.7	20.8	100.0

표 2. 무농약 제배시 수량감소에 대한 도시민의 평가

감소정도	적음	20%	50%	80%이상	합 계
비율(%)	7.3	31.3	56.3	5.1	100.0

이가 있음을 보였다. 직업별 인지도는 학생, 주부, 회사원, 전문직 모두 식량자급률을 50%이상으로 알고 있다. 특히 사회 시사면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전문직에서 조차 식량자급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향후 농업의 중요성 및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농약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농약사용이 필요하다” 61.5%, “그렇지 않다” 24%로 나타나 상당수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주부, 회사원, 전문직 등과 달리 학생의 60%는 농약의 필요성을 인정하

지 않고 있어 다른 계층과 대조를 보였으며 농업인은 100%가 농산물 생산에 농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농산물의 감소정도는 도시민의 61.5%가 “농산물의 50% 이상 감소될 것이다”고 응답했고 38.6%는 “20% 또는 그 보다 적게 감소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작물의 수량감소 정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수도 및 감자가 각각 35%, 사과 90%, 시설오이 94%, 양배추는 41%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럼에도 도시민들이 수량 감소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농약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민, 농약사용 횟수 인지도 실제와 달라

농약살포 횟수에 관한 인식은 63.5%가 농업인이 단일 작물재배 때 3~5회 살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2.9%는 6~10회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0회이상 살포한다고 생각하는 도시민도 4.2%나 된다. 농업인은 보통 작물재배 때 1년기준으로 농약살포 횟수는 “3회 미만” 4.4%, “3~5회 사용” 69.2%, “5~10회 사용” 19.8%, “10회 이상”

표 3. 농약살포에 대한 도시민의 인지도

살포횟수	<3회	3~5회	6~10회	>10회	합 계
비율(%)	9.4	63.5	22.9	4.2	100.0



표 4. 도시민의 유기농산물 선호도

정 도	선 호	보 통	선호 안함	계약구매	합 계
비율(%)	43.6	34.8	9.3	12.3	100.0

표 5. 농작물중 농약잔류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잔류정도	잔류안됨	약간잔류	많이잔류	합 계
비율(%)	4.7	73.3	22.0	100.0

6.6%로 나타나 농업인 대다수는 3~5회 정도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수의 도시민은 정서적으로 아직까지도 농업인이 농작물을 재배할 때 과도하게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기농산물 선호도, 높지 않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다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평가는 66.6%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반면 농약을 약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도시민도 33%나 있어 유기농산물의 무농약 재배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특히 학생의

53.3%만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 무농약 재배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선호도는 43.6%가 “선호한다”, 34.8%가 “보통이다”로 나타나 유기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개발 및 제조과정, 홍보해야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중 농약잔류에 대한 농업인의 견해는 “약간 잔류된다” 73.3%, “많이 잔류된다” 22.0%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약 잔류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약잔류량이 허용기

준을 초과했을 때의 처벌에 대하여는 70%가 잘 모르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층 보다 장·노년층이 잘 모르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농약 자체의 안전성과 관련해 “농약개발 때 충분한 독성시험을 거칠 것”으로 생각하는 도시민이 26%이고 “독성시험을 거치지 않을 것”이란 응답자가 4.6%, “모르겠다”가 33.3%로 나타나 농약의 제조 및 관리에 강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농약의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가 강화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농약정보**